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63

둘로 갈라진 이스라엘

(열왕기상 11:1~12:29)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왕이 있던 시기 이스라엘은 매우 강해졌고
솔로몬의 이름도 널리 유명해졌지만
그런 솔로몬도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말았어요.

“이웃 나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면
내가 그 나라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최대한 많은 여인들과 결혼할 수 있게
부지런히 알아보거라. 흠.”

그렇게 솔로몬은, 살면서 천 명 정도나 되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솔로몬의 아내들은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점차 솔로몬도
아내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만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왕에게 큰 벌을 내리셨어요!

**“솔로몬, 네가 어찌 나와 맺은 약속을 어길 수 있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라도
지금 당장은 가만히 있겠지만 네가 죽고
네 아들이 왕이 될 때 이 나라를 둘로 갈라서
그중 한쪽을 네 신하에게 넘길 것이다.”**

**이스라엘 왕국을 두 나라로 나눠버린다니
정말 무시무시한 경고였어요.**

**한편, 솔로몬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은 많은 일을 곧잘 해냈기 때문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건축을 담당하는 관리자로 임명했죠.**

하루는 여로보암이 길을 가던 중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됐어요.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로보암을 만나자
갑자기 자기의 옷을 북북 찢기 시작했죠.
옷이 갈기갈기 열두 조각으로 찢기고 나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말했어요.

“자, 이 열두 조각 중에 열 조각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 아니 선지자님, 갑자기 새 옷을 찢으시고는.
이 조각들을 왜 저한테 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를 당신이 다스리게 될 거라
말씀해 주셨대요.”**

열 조각의 천을 쥔 채 깜짝 놀란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는 한 마디를 덧붙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만 한다면 당신의 집안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대요.”**

시간이 흘러 솔로몬왕이 세상을 떠나고
젊은 왕자 ‘르호보암’이, 왕위에오르기 위해
‘세겔’ 땅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여로보암’ 역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세겔 땅으로 갔죠.

르호보암이 왕관을 머리에 쓰기 전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왕께서는, 걸핏하면
화려한 건물들을 짓기 바빴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백성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무거운 세금을 내야만 했죠.
하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
우리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해야만!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실 것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르호보암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릴 적부터 화려한 궁궐에서 살아온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생각 좀 해 볼 것이니
3일 후에 다시 찾아오거라.”

백성들이 돌아가고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을 도와
일했던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3일 후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답하면 좋겠소?”

**“모름지기 왕은 백성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시고
친절을 베푸신다면 저들도 왕을 따를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나이 많은 신하들의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평생 화려한 삶을 살았던 자신이
왜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부유하고 젊은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얘들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백성들한테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니?”

“뭐라고요? 한낱 백성 따위가 감히 왕한테 와서
일을 줄여달라 했던 말입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군요!”

**“그런 녀석들은 힘으로 눌러줘야 합니다!
친애하는 왕이시여, 가서 그자들에게
앞으로 더 힘든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똑똑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조언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3일 후 백성들에게
친구들이 시킨 대로 대답해 주었죠.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왕이니
너희에게 더 고된 일을 시킬 것이다.
가시 돌친 채찍을 휘둘러서라도
너희를 부려 먹을 거란 말이다! 명심하거라!”**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르호보암의 생각처럼 백성들이 복종을 하기는커녕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당신을 왕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느니, 당신과 싸우는 편을 택하겠소.”**

“그렇습니다! 자, 자 여러분! 이만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에
속하는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갔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이 남아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죠.

기분이 상한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려 해봤지만
그건 나머지 열 지파 백성들을 더 화나게 할 뿐이었어요.

그들은 르호보암이 보낸 신하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었죠.

이젠 르호보암도 백성들이 두려워져서
예루살렘에 피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은 정말 둘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전에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한 대로 르호보암을 떠난 열 지파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죠.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는 지역은 이스라엘 왕국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흔히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세겔'이었죠.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지역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 지역이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 ‘남유다 왕국’이라고 불러요.

수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죠.
한때 어떠한 나라보다도 번성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렇게 두 개의 왕국으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